AIDS news

| 신간소개 | 권관우 · 이주열 공저

성에 대한 33가지 궁금증 「건강한 성」

「건강한 성」은 33가지 성에 대한 궁금증과 올바른 성, 건강한 성을 제시함으로써 젊은이들의 잘못된 성 의식 · 성 지식을 바로 잡아 건강한 성 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준다.

이 책은 올바른 성, 건강한 성이 기본 방향이다. 이 책은 3부로 구성되어 있는데, 1부는 궁금한 이야기로 성과 관련된 궁금증을 묻고 답하기로, 2부는 알아야 할 이야기로 생식기와 생리적 구조, 임신, 피임, 성병, 에이즈 등 성과 관련된 기초지식을, 3부는 갖춰야 할 이야기로 건강한 성에 관한 이론적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中 지도자 春節 온정 행보

중국 최고 지도자 후진타오(胡錦濤) 국가주석겸 총서기와 원자바오(溫家寶)총리가 춘제(春節 · 구정)를 맞아 소외 계층과 지역의 민심 추스르기 행보에 나서 주목을 모으고 있다.

news >>

특히 이런 행보는 후주석겸 총서기의 '이런웨이번(以人爲本 · 사람이 모든 것의 근본이다)' 이라는 정치 슬로건과 완전 일치해 향후 수년 동안 끊임없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후주석겸 총서기가 변방 소외 지역을 순회하는 동안 원자바오총리는 에이즈의 본고장으로 악명높은 허난(河南)성 상차이(上蔡) 현을 방문했다. 3일 동안 현장의 에이즈 환자들과 자리를 함께 한 원총리는 이번 방문에서 매혈이 에이즈 창궐의 원인이라는 사실에 충격을 받고 대대적 생활 개선 대책을 지시, 촌민들의 박수 갈채를 받았다. 원총리는 지난해에도 베이징 인근의 에이즈 전문 병원을 방문, 에이즈 퇴치에 많은 관심을 보인 바 있다.

(문화일보 2005.02.11)

애슐리 주드, 남아공서 에이즈예방활동

미국 여배우 애슐리 주드(37)가 2일 요하네스버그에 새로 설립된 에이즈 · HIV(에이즈바이러스) 센터 개소식에 참가해 남아공 연예인들에게 즉석에서 HIV 테스트를 받을 것을 요청해 눈길을 끌었다. 미국 에이즈 예방 기구 '유스에이즈' (Youth Aids)의 국제대사인 주드는 이날 마침 함께 자리한 코니 퍼거슨 등 남아공 남녀 탤런트 4명에게 이같이 요청했으며 퍼거슨 등은 주드의 요청을 받아들여 손가락에 핏자국을 낸 뒤 테스트를 받았다고 일간 스타가 보도했다.

남아공 탤런트들의 테스트 결과는 '재로운

출발'(New Start)로 명명된 이 센터의 당사자 보호방침에 따라 즉각 알려지지 않았으나 테스트를 받고 나온 이들이 취재진을 만났을 때 안도감과 함께 자신감을 보였다는 것.

에이즈 예방 관련 단체들은 에이즈에 대한 청소년들의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자발적인 HIV 테스트를 받을 것을 권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2005.02.03〉

저소득층 암환자 의료비지원 확대

저소득층 암 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이 대폭 확대됐다. 보건복지부는 20일 어린이·청소년 암 환자 치료비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18세 이상 암 환자에 대한 의료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의 '저소득층 암 환자 의료비 지원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15세 이하 백혈병 환자'로 제한됐던 어린이·청소년 암 환자 치료비 지원대상이 '17세 이하 모든 암 환자'로 확대된다. 치료비가 많이 드는 백혈병 환자에 대한 지원금은 최대 1000만 원에서 최대 2000만 원으로 올랐다. 그 외의 암은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4인 가족 기준 월소득 341만 원, 재산 1억9000만 원에 미치지 못하는 가구. 지난해 기준에서 각각 100만 원, 1000만 원씩 상향 조정됐다. 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간암, 대장암 등 5대 암에 대한 18세 이상 저소득층 조기검진대상도 지난해 120만 명에서 220만 명으로 확대된다. 〈동아일보 2005.01.20〉

news >>

軍 에이즈감염자 50% 증가

지난해 우리 군의 에이즈 감염자가 2003년에 비해 50%나 늘고, 처음으로 간부들까지 에이즈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다.

한나라당 송영선 의원이 16일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군 에이즈 감염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군내 에이즈 감염자는 지난 2000년부터 2002년까지는 각각 3명, 5명, 4명에 불과했으나 2003년에는 10명으로 늘었고, 지난해에도 15명으로 전년도보다 50%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지난해 감염사실이 확인된 군인 가운데는 영관급 장교와 부사관도 처음으로 1명씩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2000년 이후 현재까지 에이즈 감염자로 확인된 군인 총 37명 중 34명이 전역 조치됐으며 나머지 3명은 훈련병으로 현재 전역 대기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송의원은 "사병들은 군에 오기 전 이미 에이즈에 감염됐거나 또는 입대 후 휴가 기간에 감염됐지만, 장교와 부사관 등 간부들의 경우 일상생활 과정에서 에이즈에 감염된 것으로 드러났다"며 "군에 대한 에이즈 예방교육 프로그램이 강화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향신문 2005.01.16〉

'에이즈 감시정보시스템' 구축

오는 2006년까지 에이즈 관련 수혈감염 예방과 감염자 관리 수준을 획기적으로 향상하기 위한 '에이즈 감시정보시스템'이 구축된다.

특히 이 같은 시스템이 구축될 경우, 질병

관리본부에서 에이즈 여부를 최종 확진할 때 재통보를 실시해 헌혈경력 조회통보까지의 기간이 현행 22일에서 9일이 준 13일로 단축될 전망이다.

1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수혈감염예방을 위한 정보교류 및 감염자 관리현황 파악의 원활성을 기하기 위해 우선 올해 2억2000만 원을 투입해 질병관리본부·지방자치단체·혈액수혈연구원과의 통합정보시스템 프로그램을 구축키로 했다.

이 시스템은 각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시·도 등 지자체 관계자 및 혈액수혈연구원 관계자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함으로써 프로그램 개발시 각 부처에서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할 계획이다.

현재는 질병관리본부에서 에이즈를 확신할 때 혈액수혈연구원에 양성자를 통보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헌혈경력조회의 시급성을 고려해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확진 시 즉시 혈액수혈연구원에 통보토록 할 방침이다.

〈일간보사 2005.01.15〉

news >>

의료급여환자 입원보증금 요구 원천 금지

앞으로 의료급여환자를 진료한 의료기관은 입원보증금을 요구할 수 없으며, 본인부담금이 과다할 때에는 반드시 환불해야 한다.

복지부는 "일부 의료기관들이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입원보증금을 요구하거나 본인부담금을 과다 청구하고 있지만 제지할 수 있는 근거가 미비하다"면서 "이들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의료급여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의료급여법을 개정, 의료급여수급권자가 자신이 의료기관에 지급한 본인부담금 이외에 부담한 비용이 의료급여 대상에서 제외된 것인지 여부를 심평원(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확인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심평원은 이같은 요청을 받으면 반드시 확인결과를 통보하고, 의료급여비용에 해당하면 공단과 해당 의료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해당 의료기관은 과다 징수금액을 환자에게 지체 없이 지급해야 하며, 공단은 의료기관이 이를 어길 때에는 의료급여비용에서 공제한 뒤 환자에게 돌려줄 수 있다.

특히 복지부는 의료급여법에 의료기관은 의료급여나 비급여 이외에 입원보증금 등 다른 명목으로 비용을 청구할 수 없도록 명시할 방침이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의료급여환자를 진료한 의료기관이 업무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때에는 심평원뿐만 아니라 공단에도 알려야 한다.

〈데일리메디 2005.01.12〉

英 국립의학硏 "인간유전자 에이즈바이러스 차단 못해"

인간이 에이즈 바이러스(HIV)에 감염돼 발병하는 정확한 원인이 밝혀졌다.

영국 국립의학연구소(NIMR) 바이러스연구실장 조너선 스토이 박사는 인간과 뱅골원숭이는 모두 트림-5α(trim-5alpha)란 유

전자를 갖고 있지만 뱅골 원숭이의 유전자는 HIV를 차단하지만 인간의 유전자는 HIV를 막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아냈다고 밝혔다.

스토이 박사는 그 이유에 대해 인간의 트림-5α 유전자를 구성하는 아미노산의 구조 하나가 에이즈 면역력을 가진 뱅골 원숭이의 유전자와 다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현대 생물학' 최신호에 발표한 연구 보고서에서 이 같은 사실을 밝혔다.

스토이 박사는 문제의 유전자를 뱅골 원숭이의 트림-5α로 바꾸는 유전자 요법을 개발한다면 에이즈 문제를 깨끗이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하지만 그는 이번 시험관 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동물실험, 임상시험을 거쳐 최종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동아일보 2005.01.11〉

만델라 장남 에이즈 사망

넬슨 만델라(86) 전 남아프리카공화국 대통령의 장남이자 와이들인 마가토 만델라(54)가 에이즈로 사망했다고 만델라 전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통해 밝혔다. 변호사 겸 사업가로 활동했던 마가토는 만델라가 첫 부인인 아볼린과의 사이에서 낳은 2남2녀 중 장남으로 지난달 요하네스버그 링크스필드 파크 클리닉에 입원했다.

만델라 전 대통령은 자신의 아들이 에이즈 관련 합병증으로 사망했음을 알리기 위해 기자회견을 자청했다며 "에이즈 바이러스(HIV)와 에이즈를 공개하고 숨기지 말자. 왜냐하면 에이즈를 결핵이나 암처럼 보통 병으로 느끼도록 하려면 항상 나서서 누군가가 HIV로 죽었다고 말하는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또 "나는 내 가족 중 누군가가 에이즈에 걸렸을 것으로 의심하기 전부터도 이런 주장을 해왔다"고 덧붙였다. 〈조선일보 2005.01.07〉

news >>

미국, 우간다에서 에이즈치료제 무분별 임상시험

미국 국립보건원(NIH)이 우간다에서 에이즈 치료약을 연구하면서 부작용이 있는 약을 무분별하게 투여해 수백 명의 산모와 아기를 위험에 빠뜨렸다는 주장이 4일 다시 제기됐다. 국립보건원의 조나산 피시바인 박사는 이날 독립적인 조사위원회에 출석해 "국립보건원이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연구를 묵인했다"며 "이건 아프리카인들의 생명에 대한 무관심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폭로했다.

국립보건원은 우간다에서 산모와 아기들에게 에이즈바이러스 전염방지에 효과가 좋은 것으로 알려진 네비라핀을 투여하는 연구를 해왔다.

네비라핀은 1990년대부터 성인 에이즈 환자에게 투여돼 왔지만, 반복 복용하면 간에 치명적 손상을 줄 수 있고 장기적으로 다른 에이즈 약제에 면역력을 키운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국립보건원의 이 연구는 여러 차례 내부 문제제기로 한때 15개월간 중단되기도 했지만, 2003년 다시 재개됐다.

〈한겨레 2005.01.05〉